

명품입고 양산쓰고... 남성 쇼핑 트렌드는 '가치 소비'

브루넬로 쿠치넬리·구찌·루이비통 신세계백 등 남성전용매장 오픈 양산 구매 '남성' 전년 비 122% ↑ 화장품·패션·잡화 등 구매율 늘어

명품 시장이 여성을 주 타깃으로 하던 시대는 지났다. 남성들이 '큰 손'으로 떠오르면서 남성 전용숍이 생겨나고, 남성을 타깃으로한 마케팅도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패션, 잡화의 경계도 허물어지는 추세다. 여성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양산은 어느새 남성들의 여름 아이템으로 주목 받고 있다.

7월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남성 단독 매장을 선보이고 있는 명품 브랜드는 브루넬로 쿠치넬리, 구찌, 루이비통 등이다. 브루넬로 쿠치넬리는 지난달 27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본관에 국내 최초로 남성 단독 매장을 열었고, 구찌는 지난 6월 회현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루이비통은 지난해 12월 압구정동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에 남성 전용 매장을 열고 운영 중이다.

명품 브랜드들이 잇따라 남성 단독 매장을 선보이는 이유는 남성들의 소비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워라벨', '소확행'



롯데백화점은 25일 서울 소공동 본점 잡화 매장에서 무더운 날씨에 뜨거운 햇살을 가려주는 양산을 판매한다. 최근 일주일 동안(7월 18일부터 24일까지) 무더운 날씨가 계속 되면서 양산 매출은 전년 대비 97.8% 신장했다. /뉴스시스

행' 등의 문화가 확산되면서 자신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는 남성들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30대 남성들을 중심으로 구매력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강남점, 본점에서 명품을 구입한 30대 남성 고객 수는 전년 대비 14.1% 증가했다. 반면 여성 고객 수는 약 2%대 증가에 그쳤다.

그뿐만 아니라 명품 의류 및 잡화 부문에서도 30대 남성의 매출 비중이 30대 여성을 9.7% 앞질렀을 정도로 명품에 대한 젊은 남성들의 관심은 높아졌다.

롯데백화점의 경우, 지난해 남성용 명품 보석과 장신구 판매량이 10%대로 늘어남에 따라 남성편의점류 매장을 강화했다.

쇼핑에 눈을 뜬 남성들은 패션의 남녀 경계도 허물고 있다. 올 여름 폭염과 맞물리면서 '양산'의 인기가 크게 높아진 것이 그 예다.

G마켓에 따르면 지난 7월 12일~25일 동안 양산을 구매한 남성 고객 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122%나 증가했다. 같은 기



(위부터 차례대로)브루넬로 쿠치넬리, 구찌, 루이비통의 남성 매장 전경. /각사

간 동안 11번가에서는 167% 오름세를 나타냈다.

양산을 가장 많이 산 세대는 40대(35%)였으며, 30대(33%), 50대(15%), 20대(11%)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0대 남성의 양산 구매 신장률은

238%에 달했다. 40대(196%), 50대(162%), 30대(159%)가 그 뒤를 이었다.

몇 년 전만해도 중년 여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양산은 젊은층 여성들에게 인기를 얻은 데 이어, 이제 세대 불문한 남성들의 마음까지 사로잡고 있다.

이는 '가치소비'를 지향하는 남성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변화로 분석된다. 관심 분야에 돈을 아끼지 않는 경향이 확산되면서 화장품, 패션, 잡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성들의 구매율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양산의 경우, 체감온도를 3~7도 가량 낮춰주고 탈모 방지 및 자외선 차단 효과가 탁월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피부, 탈모 관리에 관심이 많은 남성들의 구매욕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옥션의 7월 한 달간 양산 판매량은 83%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남성들의 구매율은 54%에 달했다. 자연스레 남성들이 선호하는 무채색 계열의 양산도 속속 쏟아져나오는 추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젊은층 남성들을 중심으로 '가치 소비'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이제 여성들의 소비 비중을 웃돌고 있다"며 "남성들을 겨냥한 마케팅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11번가, 제주렌터카 실시간 가격비교 시작

차종·보험 등 옵션 맞춰 예약도 가능

11번가가 제주 여행 시 꼭 필요한 렌터카와 항공, 숙박 예약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7월 11번가는 오픈마켓 최초로 '제주렌터카 실시간 가격비교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제주도 렌터카 가격비교 서비스 플랫폼인 '제주패스'를 통해 고객들은 제주도 지역 내 렌터카 업체들을 쉽고 간편하게 한 번에 비교할 수 있고 출발일 기준으로 차종, 보험 여부, 제조사, 정원 인원, 연료 등 필요한 옵션에 맞게 검색해 최적의 상품을 예약·결제할 수 있다.

제주패스는 지난 2015년에 서비스를 시작해 제주도 내 54개 회사와 제휴를 맺고 226개 차종, 1만4000여대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11번가는 그 중 31개 업체의 1만1000여대 차량으로 먼저 서비스를 시작하고, 순차적으로 제주패스가 보유한 모든 상품라인업을 제공할 예정이다.

여행 관련 서비스의 검색, 예약, 결제 등이 '모바일' 위주로 이동하고 있는 트렌



드를 반영해 이번 '제주렌터카 실시간 가격비교 서비스'는 모바일 앱(App)에서 제공한다. 고객들이 모바일을 통해 다양한 업체별 특가점 비교 후 정보를 편리하게 얻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강화하고 국내 대표 렌터카 OTA(Online Travel Agency) 업체들의 입점도 늘려 서비스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SK플래닛 김수경 여행/O&O TF장은 "'11번가 여행'이 고객 관점에서 더욱 편리한 서비스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41 | 해질 / 19:33

8월

8일

음력 : 6월 27일

수도권 날씨

35~28°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여름을 즐기는 '맥주축제'

하이트진로 '전주가맥축제'

이랜드 이월드 '썸머 옥토버 페스티벌'

'하이트'로 시원하게!

루프탑서 즐기는 맥주



하이트진로가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전주종합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리는 '제4회 전주가맥축제'에 특별 후원사로 참여해 지역 공장에서 당일 생산한 맥주를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9일 오프닝 행사를 시작으로 축제 기간 동안 다양한 소비자 참여 프로그램, 즐길 거리, 볼거리가 가득한 '하이트 엑스트라콜드 데이' 등을 운영하며 브랜드 홍보에 나선 예정이다.

하이트진로는 전주공장이 자리한 전라도 지역과의 인연으로 지역상생을 위해 4년 연속 특별 후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전주가맥축제는 전주의 독특한 음주문화인 가맥(가맥)을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골목상권 육성을 취지로 축제화하게 됐다. '오늘 생산한 맥주를 오늘 마실 수 있는 맥주 축제'를 표방한 만큼 시원한 맥주와 함께 다양한 가맥 안주를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다. 올해 축제에 참여하는 가맥집 24곳은 전주가맥축제추진위원회가 사전 신청을 받아 역사성, 정통성 등을 평가해 공정하게 선발했다.

하이트진로는 축제의 상징이 된 '맥주 연못'을 3일간 운영하며 당일 생산한 시원하고 신선한 하이트 엑스트라콜드 4500상자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축제 참여 인원과 맥주 소비량을 고려해 올해 공급 물량을 추가 확대했다. 또, 시원한 맥주를 즐기면서 찜통 더위도 잊을 수 있는 다양한 소비자 참여 이벤트를 매일 진행하며, 소맥 자격증 발급, 페스티벌 스티커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브랜드 홍보부스를 마련해 축제의 또 다른 즐거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하이트 엑스트라콜드 데이'인 축제 둘째 날(10일)에는 관객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특별 무대 프로그램을 저녁 5시부터 진행한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하이트 엑스트라콜드 /하이트진로

이랜드 이월드가 시원한 맥주를 즐길 수 있는 썸머 옥토버 페스티벌을 열었다고 7일 밝혔다.

맥주 축제는 오는 12일까지 매일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이월드 83타워 4층 스카이 비어 루프탑 광장에서 진행된다.

수제 맥주를 비롯해 버드와이저, 코로나 등 해외 맥주까지 10여종을 즐길 수 있으며, 그 밖에 푸드트럭존을 운영하여 바비큐 립, 스테이크, 새우 등 다양한 안주와 먹거리도 만날 수 있다.

축제 기간 동안에는 버스킹팀의 공연도 매일 이어질 예정이며, 비어가든 무대에서는 맥주왕 선발대회도 개최한다. 또 익스트림존에는 대프리카의 더위와 스트레스를 날려줄 펀치, 젠가, 병뚜껑 컬링 등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됐다.

현재 83타워 스카이가든에서는 830만개의 전구가 반짝이는 타워 별빛 축제가 한창 열리고 있어 시원한 맥주를 즐기며 인생샷까지 남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월드 관계자는 "더위에 지친 대구 시민들에게 시원한 맥주 축제를 선물하고 싶었다"며 "친구, 연인, 가족과 함께 한여름 밤의 추억을 남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이랜드 이월드 스카이 비어 루프탑 광장

/이랜드